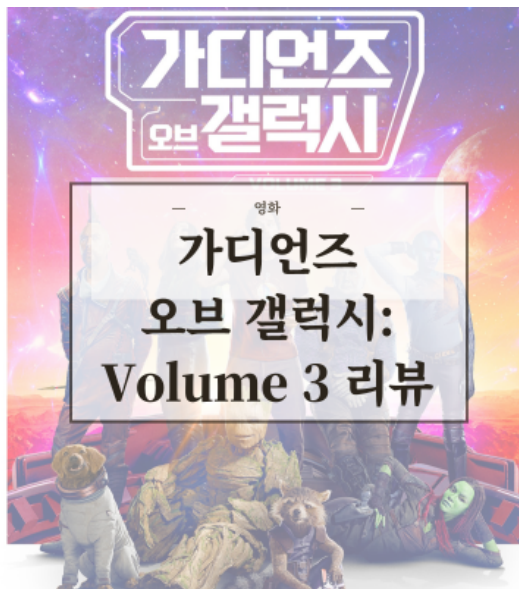


롯데시네마 노원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 1414 롯데백화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감독 제임스 건

출연 크리스 프랫, 데이브 바티스타, 조 샐다나, 빈 ...

개봉 2023. 05. 03.

지난번에 본 영화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에 이어 크리스 프랫이 주연인 영화를 연속해서 보게 되네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이하 가오갤) 3 리뷰입니다.

가오갤 2가 2017년 5월 3일 한국에서 개봉했고, 그 후속작인 본 영화가 정확히 6년 뒤인 2023년 5월 3일 개봉했습니다.
6년이나 지났으니, 주된 내용만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가물가물합니다.

기존에 가오갤 1은 보지 않고 2만 봤던 기억이 납니다.

1 내용을 모른 채로 봤지만 충분히 재미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2 내용을 모르고 3만 보더라도 이야기 큰 열개 파악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원래 같으면 이것저것 감상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찾아본 뒤 리뷰를 작성하겠지만, 이번엔 그냥 써보렵니다.
찾다 보면 리뷰 작성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번에 영화를 너무 제 입맛대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리뷰에도 영화 내용과 별반 상관없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도 가끔적 리뷰는 영화 감상 후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쯤에서 각설하고 시작해 보죠!



저는 겁쟁이입니다.

따흐니 못지않은 진짜 겁쟁이입니다.

갑자기 웬 소리냐 싶으시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컴퓨터실에서 공포 게임하는 친구들 모니터? 결눈질도 못했습니다.

올해 초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에 갔는데, 그다지 퀄리티 높은 귀신의 집이 아니었음에도 친구 등 짹 잡고 눈 감은 채로 간신히 지나갔습니다.

솔직히 귀신의 집 안에서 눈 뜬 것보다 눈 감은 시간이 더 길어서 퀄리티고 뭐고 모릅니다.

잔인한 것,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조금 다른 결이지만 우주도 진짜 무섭습니다.

이런 걸 미지에서 오는 공포, 코즈믹 호러라고 하던가요?

당장 내 인생 시작과 끝을 상상하는 것도 무서운데, 세상의 처음과 끝을 상상하는 건 훨씬 스케일이 커서 그런지 더 무섭습니다.

인간은 몰라도 일단 저는 상상하기 어려운 걸 상상할 때 겁을 정말 많이 느낍니다.

*있잖아. 사람은 말이야.
상상력이 있어서 비겁해지는 거래.
그러니까 상상을 하지 말아 봐.
존나 용감해질 수 있어.*

영화 <올드보이>, 2003

전 비겁해지는 건 모르겠고 그냥 겁이 납니다.

아무튼!

이 영화를 보면서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영화가 자꾸 우주, 신, 생명 윤리, 다양성 이런 걸 다루니까 그 코즈믹 호러인가 뭔가가 자꾸 저에게 닥쳐와서 쫓아있었어요.

안 그래도 요새 물리학 박사님, 머스크 아저씨 비롯한 똑똑한 사람들 나오는 유튜브 영상 보면서 물리학, 우주론 걸 훑기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 미지의 영역이라고 하는 우주, 창작의 영역에 있어서는 금광이 따로 없습니다.

미지의 공간을 상상력으로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요.

적당히 개연성 있는 스토리와 캐릭터를 입히기만 하면, 다른 소재에 비해 과감하고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오겔도 그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상상력이 이 영화를 무섭게 하고, 이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미지가 주는 공포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면, 전 그저 누군가 이런 영화 아이디어를 상상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제 막 다행성 종족을 꿈꾸기 시작하는 단계인 현 인류가 다종족 다행성을 다루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영화 3부작으로 만들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화가 관객들에게 거창한 메시지를 남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코미디가 주된 장르 아니겠습니까.
영화가 의도한 감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보고 와서 이런 생각들이 맴돕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미래, 인간은 다종족사회가 될 수 있을까?
다종족사회가 된다면, 지성체를 넘어 종족 간 차이를 허무는 결정적인 열쇠는 무엇일까?
생명의 무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사랑입니다.
연애, 가족애, 우애를 비롯한 모든 사랑.

알면 알수록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없이 큰 우주.
그리고 아직까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일한 행성 지구.
그 안에서 문명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

누가 감히 삶의 목적과 가치를 모든 생명체에게 강요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생명체 간 우열을 가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미지의 세계에서 와 미지의 세계로 떠나고, 누군가에게는 공포를 주는 이 미지 덕분에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라는 공간 안에서 한없이 작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체끼리 가져야 할 감정은 증오가 아닌 사랑입니다.

물론 약육강식, 힘의 논리에 의해 지구에서 명실상부한 최상위 포식자가 된 인간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누군가에겐 실소 대상일지 모르겠습니다.
동물권, 식물권까지 넘어가면 훨씬 복잡해질 이야기일 테고요.
아무튼 그냥 제가 느낀 게 이렇다는 겁니다.

가오갤 캐릭터들이 중심으로 다뤄지다 보니 빌런이나 기타 캐릭터에게서 아쉬움이 좀 남긴 하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닙니다.
시리즈 마지막 작품으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Farewell이었던 생각.
아쉬운 뒷맛도 남지 않고, 딱 기분 좋게 식사 마친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나 4, 5편 나와서 "<캐리비안의 해적>"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캐리비안의 해적>" 하다: 밤팔이가 만든 신조어로, 꾸역꾸역 시리즈 이어 나가다가 이전의 좋은 평가를 날려먹는다는 뜻.

뭔가 설득력 있게 써보고 싶었는데, 역시 멋있는 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좋은 글 열심히 찾아 읽고 글도 더 많이 써봐야겠습니다.
물론 영화나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열심히 찾아보고요.

글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영화 추천 여부로 마무리할까요?



저는 재밌었으니 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액션신이 많으니 아이맥스 3D도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럼 이만!

여기서부터는 그냥 영화관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KT VIP 할인받고 봤습니다.
1인 무료 + 동반 할인해서 2인 11,000원.
인당 5,500원꼴이네요.



가오갤 시리즈 안녕~